

모세 3

-열여섯 번째 이야기-



107Page

나 레 이 선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가는 기나긴 여행을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홍해에 이르는 광야의 길로 인도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낮에는 커다란 구름기둥으로 햇빛을 가려 주시고, 밤에는 밝은 불기둥으로 그들의 앞길을 비추어 주셨어요.

사 람 들 인도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레 이 선 마침내 아주 넓은 홍해가 나타났어요. 모세는 그 곳에 장막을 치고 사람들을 쉬게 했어요. 사람들은 긴 여행에 지친 피로를 풀고, 가족들도 돌보았어요.



108Page

나 레 이 선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 보낸 바로왕은 곧 후회했어요.
바 로 내가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으면 누가 우리를 위해 일하지? 다시 그들을 잡아와야겠어. 여봐라 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라. 그들을 데려와 다시 노예로 삼아야겠다.

나 레 이 선 곧 병사를 태운 말들이 쏜살같이 광야를 향하여 달려갔어요.



109Page

나 레 이 선 바닷가에 앉아 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저 편에서 몰려오는 애굽의 병사들을 보았어요. 그들은 모두 두려워했어요.

여 자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거예요?

남 자 이렇게 죽느니 애굽에서 일을 하는 것이 더 나았을거요!!!!

나 레 이 선 그들은 애굽의 군인들을 보며 두려워 모세를 원망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모 세 두려워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겁니다.

나 레 이 선 그러는 사이에 애굽의 병사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어요.



110Page

나 레 이 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 나 님 모세야, 너는 내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라! 너는 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뻗어 물을 갈라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 한가운데로 바다를 건널 것이다.

나 레 이 선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 든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자 어디선가 강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 바람은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고 바다 사이에 길을 만들었어요. 물이 양쪽으로 갈라져 벽이 되고 사람들이 그 사이를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나타났어요.

사 람 들 아, 바다가 갈라졌다!

나 레 이 션 사람들은 기뻐하며 바다를 향해 조심조심 걸음을 옮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사히 건너갔어요.

.....

나 레 이 션 어느새 애굽의 병사들도 뒤쫓아 와서 바다를 건너려고 했어요.

하 나 님 네 손을 바다 위로 뻗어 보아라.

나 레 이 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을 바다위로 뻗었습니다.

그러자 바닷물이 다시 합쳐졌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물을 피해 도망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의 병사들을 쓸어 바다
한가운데에 넣어버리셨어요.

사 람 들 와! 하나님은 위대 하시도다!

나 레 이 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 감사 드렸어요. 또한 하나님과 그
종 모세를 믿었어요.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